

# 국내 크리스천 청년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종교활동 참여와 기독교 신앙심의 영향을 중심으로\*

## Christian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s Cohabitation: Focusing on Church Activity Participation and Christian Religiosity in South Korea

조성봉 (Sung Bong Cho)\*\*

이수민 (Soomin Lee)

장선아 (SunAh Jang)

강병덕 (Byungdeok Kang)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In Korea, the number of people who support cohabitation as a possible option for an intimate relationship or an alternative to marriage has increased vastly, and this trend also seems to be occurring similarly among Christian young adults. To explore Christian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s cohabitation and possible causes to such attitudes, we examined 568 church-attending young adult Christians, focusing on their church/religious activity participations and personal faith/values as possible predictors. Results showed that 70%(n = 399) of the participants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cohabitation, while 25%(n = 142) had positive attitudes. Additionally,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spiritual maturity, Christian moral value, Christian view on sex, dating education in church, and church attendance frequenc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having positive attitudes towards cohabita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of ministry for Christian young adults a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attitude toward cohabitation, Christian young adults, religious activity participation, Christian religiosity

\* 2021년 5월 11일 접수, 6월 8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scho@handong.edu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bkang@handong.edu

## I. 서론

최근 들어 혼전 동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특히 성인 남녀의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그동안 국내 여러 연구 및 통계 자료들을 통해 제시되어 왔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국내 13세 이상 가구원의 59.7%가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10년 전 40.5%에 비해 20% 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한 13세에서 24세 나이에 속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61.7%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동연구를 통해 2010년에 수집된 자료에서 보고된 53.3%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통계청, 2017).

이와 같은 혼전 동거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어 온 성(性)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현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녀의 동거가 성관계를 동반함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혼전 동거에 대한 찬성 비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접촉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송정아, 2007; 이성규, 2010; 장미, 2005). 또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국내의 상황에서, 동거는 결혼관계의 대안으로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 자주 다뤄지기도 한다. 즉 동거가 결혼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묘사되거나 결혼 전 동거 경험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동거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인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해결방안으로서 장려되기도 한다. 결국 이같은 현상들은 남녀 간의 성관계가 결혼 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남녀의 동거가 숨겨거나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성의식에 대한 국내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추이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혼 기독교청년들 중 52%가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57.4%가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60% 이상이 혼전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이상원, 정재영, 송인규,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율이 41%인데 그 중 비기독교인(41.3%)과 기독교인(39.1%)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또한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의 경우 대학생들의 67%가 동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이는 그로부터 5년 전(2012년) 연구에서 36%만이 혼전 동거에 찬성하였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관해서서 크리스천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

으로 진행된 구체적인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고 관련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와 같은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동거 관련 통계 및 연구 또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기독교 청년들이 동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이해조차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나아가 그러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우리사회 내에서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독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그 변화의 추이를 살피고,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분명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같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크리스천 청년들은 혼전 동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2. 크리스천 청년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종교활동 참여와 신앙심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사전적 의미로 동거는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삶’ 혹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한 집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08). 연구 문헌에서 권미경과 지영숙(2005)은 ‘혈연관계나 친족 관계가 아닌 두 성인 남녀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동거를 정의하였고 이연주(2008)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가 있는 두 남녀가 공동의 주거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p.79)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김정석(2006) 등 한국의 가족학자들은 동거를 성관계에 연관이 없는 다른 주거형태와 결혼한 사람들의 혼외관계와 구별하기 위하여 동거라는 개념 대신 ‘혼전동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가족법 분야에서는 동거를 사실혼과 구별하기 위한 ‘혼외동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이연주, 2008).

동거에 대한 연구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북미나 유럽의 경우와 달리, 국내 동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외와 국내 논문들을 통해 제시된 동거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동거와 관련된 인식 및 경험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아 성경적으로 동거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하였다.

## 1. 혼전 동거 유형의 분류

동거의 초기 유형은 결혼 생활과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되었으며 결혼계획의 유무에 따라 크게 2가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혼전)동거( Prelude to marriage)와 결혼계획이 없는,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alternative to marriage)로 나누어졌었다(Bumpass & Sweet, 1989; Bumpass et al., 1991; Brown, 2004; Brown & Booth, 1996).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동거의 모습을 결혼의 대안이 아닌 미혼의 대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였다(Rindfuss & VandenHeuvel, 1990). 이후 Casper and Bianchi(2002)는 동거를 4가지 유형, 즉 대안동거( alternative to marriage), 예비동거( precursor to marriage), 시험동거( trial marriage), 공동주거 연애동거( coresidential dating)로 더욱 세분화하였고 Heuveline & Timberlake(2004)의 경우 동거를 소외된 ( marginal) 동거, 결혼을 위한 경험적 동거 ( prelude to marriage), 결혼과정으로서의 동거(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독신의 대안으로서 동거( alternative to single), 결혼의 대안으로서 동거( alternative to marriage), 결혼과 별 차이가 없는 동거( indistinguishable from marriage)인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Mynarska & Matysiak(2010)는 동거확산 모델을 제시하면서 동거를 4 단계 즉, 1) 비혼 동거가 드물어서 그 사회에서 일탈이나 아방가르드 행위로 인식하는 단계 2) 동거가 증가하면서 점점 결혼 전 단계, 실험적 기간으로 인식하는 단계 3) 동거기간이 증가하고 동거부부가 결혼관계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단계 4) 동거와 결혼이 차이가 없다고( Cohabitation and marriage become equivalent) 인식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Ridley, Peterman, & Avery(1978)의 경우 상담장면에서 관찰한 미국인 대학생 동거 커플들의 모습을 통해 4가지 동거 관계 유형, 라이너스 담요형( 불안정 애착형), 해방형, 편의형, 시험형으로 동거를 분류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경우 김지영(2005)은 동거와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동거 유형을 세 가지, 1) 연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거( 주로 대학생의 동거), 2)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 전 실험적 단계로서 혼전 동거, 3)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와 가족 제도를 문제로 인식하고 현재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비혼 동거로 보았다. 이연주(2008)는 동거를 예비동거, 대안동거, 대체동거, 그리고 편의동거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고 대안 동거는 ‘ alternative to marriage’로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동거, 그리고 대체 동거는 결혼이라 제도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에 대한 반대로 선택하는 동거로 구분하였다.

## 2.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연구

혼전 동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동거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으로, 주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동거에 대한 찬성/반대 또

는 동의 정도, 동거를 찬성하는 이유 등을 탐색하였다. 둘째는 동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태도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는 실제 동거 경험을 탐색하여 분석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거나 동거를 선택한 이유들을 탐색하여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 (1)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

혼전 동거의 찬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은 혼전 동거에 대한 질문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혼전 동거에 대한 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통계청에서 매 2년마다 발표하는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10년 41%(전적으로 동의 6%, 약간 동의 35%)에서 2020년 60%(전적으로 동의 16%, 약간 동의 44%)로 지난 십 년 동안 19% 포인트 증가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자의 동의 비율은 2010년 45%에서 2020년 62%로 17% 포인트 증가하였고, 여자의 동의 비율은 2010년 37%로 2020년에는 56%로 19% 포인트 증가하였다. 2010년과 2020년 모두 남자의 동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지만, 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여자가 2% 포인트 더 높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동거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20년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절반 이상이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 여부에 따른 비교에서 혼전 동거에 대한 미혼자의 동의 비율은 2020년 77%로 배우자가 있는 참여자의 동의 비율 53%와 비교하면 24% 포인트 더 많았다(통계청 2010, 2020).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보고서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항목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 동거에 대한 찬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미혼 남녀 2,464명 중 찬성(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비율은 74%로 열 명 중 일곱 또는 여덟 명이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1140명 중 77%이었고, 여자는 1324명 중 71%로 남녀의 차이는 6% 포인트로 사회조사에서 나타났던 남녀 비율 차이와 거의 동일하였다(이소영 외, 2018).

전국적인 현황 조사 외의 개별적인 연구에서는 정희정(2001)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혼전 동거에 대한 견해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44%가 혼전 동거에 대해 찬성하였고, 39%가 반대하였다. 김미현(2009)은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허용적인 태도가 35%로 가장 많았고, 비허용적인 태도는 30%, 중립적인 태도는 28%였다. 그리고 동거 기회가 생겼을 때 동거를 할 의향에 대해서는 4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2010년 사회조사의 찬성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통계 결과들은 최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혼전 동거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혼전 동거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찬성 비율의 증가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들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들보다 혼전 동거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이었다.

## (2) 혼전 동거에 대한 경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적인 동거 경험 비율은 연구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김미현, 2009)에서는 대학생들의 동거 경험이 6%로, 전라권을 중심으로 한 김해란·김계하(2010)의 연구에서는 21%로, 그리고 양수진·임춘희(2012) 연구에서는 10%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성별에 따른 동거 경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반면, 종교에 따른 동거 경험 비율은 김미현(2009)의 연구에서는 그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불교 6.3%, 기독교 5.3%, 천주교 4.3%, 무교 5.6%), 김해란·김계하(2010)의 연구에서는 종교의 유무에 따른 동거 경험 비율이 차이가 6% 포인트 있었다(종교 있음 18%, 종교 없음 24%).

동거를 경험한 학생들이 언급한 동거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것, 결혼 경험, 상대방 파악, 정서적 안정, 경제적 효율이 주된 것이었다(김미현, 2009; 김해란·김계하, 2010). 변수정(2017)의 연구에서 혼전 동거 중인 대상자들은 동거 선택 이유로 혼인 의사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제적 상황을 가장 주된 이유로 언급하였다. 또한 결혼 계획 없이 같이 살고 싶은 마음과 이성 교제 중 데이트 비용이나 생활비 절약 등 경제적 이유 등 혼인과 직접 관계없는 이유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주요한 이유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변수정 외, 2016)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사의 여부에 따라 동거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및 혼인과 관계 없는 동거”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동거를 선택한 이유에는 혼인 의사는 있지만 집 마련 및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 제약 때문에(24.1%)와 혼인 전에 살아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17.4%)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지하며 같이 지내고 싶어서(19.0%), 데이트 비용, 등 생활비 절약을 위해(18.6%), 결혼 등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13.0%) 등을 동거 선택의 주요한 이유로 보고하였다.

## (3) 혼전 동거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혼전 동거 인식 또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결

혼 여부, 교육 수준, 종교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성별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가 상이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지만(김미현, 2009; 양수진·임춘희, 2012; 정희정, 2001), 남자와 여자의 태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다(남주희, 2006; 박정윤 외, 2016; 손승희 외, 2018). 나이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혼전 동거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남주희, 2006).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혼전 동거에 대해 더 개방적이었다(남주희, 2006; 김승권, 2014).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박정윤 외, 2016). 종교 여부에 있어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개방적이었다(정희정, 2001; 박정윤 외, 2016).

혼전 동거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다. 박정윤 외(2016)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아통합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수진·임춘희(2012)의 연구에서도 자아 분화 중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혼전 동거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혼전 순결을 찬성하는 경우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윤 외, 2016).

가족의 기능이 혼전 동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의 결혼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을 민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혼전 동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양수진·임춘희, 2012).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결혼 만족도는 혼전 동거 태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김미현, 2009).

### 3. 혼전 동거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성경은 남녀의 혼전 동거에 대해서 직접 다루고 있지 않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특정 구절을 성경에서 찾을 수도 없다. 즉 성경에 혼전 동거 혹은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거나 죄라고 명시하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상호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대상과 혹은 다른 관계에서 갖는 성관계를 부정, 혹은 음행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의 경우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창 2:24)은 결혼을 통한 육체적 하나됨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은 이같은 육체적 관계가 결혼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동거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성적결합이

두 사람의 혼인 관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제한함을 통해 결국 동거를 통한 성적 관계도 음행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남정우, 2003; 이경직, 2015). 즉 동거를 결혼의 좋은 대안이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으로 여기는 현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며 이는 언약에 기초한 헌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이성규, 2010; 임종원, 2003), 기독교적 입장에서 결혼과 동거관계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결혼과 동거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결혼은 애정이나 현실적 필요에 따른 선택을 넘어, 어떠한 경우라도 결혼하는 상대방과 함께 하겠다는 공적 약속에 기반하여 성립되는 관계이고 각자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지, 즉 헌신을 동반한다(Stanley, 2005; Stanton, 2011). 물론 동거를 통해서도 남녀가 결혼한 부부의 경우와 같이 함께 살면서 결혼생활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한 제도적, 법적인 보안을 통해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보호, 보장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거는 개인의 필요나 감정,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결혼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막 10:9; 고전 7:10-11). 물론 결혼에도 이혼이라는 출구가 있긴 하지만, 이혼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며 이는 많은 경우 오히려 결혼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와 가정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크리스천이 일단 결혼했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과의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전 7:12-13).

이처럼 성경은 결혼이 신성하고 깨어질 수 없는 언약에 기반하고 있고 남녀의 성관계가 이러한 신성한 약속 안에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지만(이경직, 2015) 최근 들어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퍼지고 있는 성에 대한 자유로운 입장과 개방적인 성의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한 대화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혼전순결을 전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이나 필요에 따라 성적 접촉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성관계는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 즉 인격적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직 결혼 관계에서만 허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에 대해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같은 국내 크리스천들의 혼전 동거 관련 태도나 행동에 관한 실질적 통계나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명조(2003)의 연구(n=76)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청년들의 88%가 혼전 동거가 비성경적이고 80%가 혼전 성관계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도 하면 안된다고 응답한 바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혼전 동거를 비성경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실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터라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연구참여자들 선정에 제약이 있었던 바 보다 최근의, 다양한 교회들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도에 위치한 P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지역 소재 교회의 대학부 또는 청년부와 대학교 재학생 중 종교가 기독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소재 기독교 대학과 함께 여섯 곳의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 소속 1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3 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2 교회)에서 참여하였다. 전체 설문조사 참여 인원은 604명이었고, 참여자 중 기혼자 36명을 제외한 568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56%(316명)로 남성보다 약 10% 포인트 더 많았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면, 23세 이하가 187명(33%)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참여자들은 458명으로 전체에서 81%를 차지하였다.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대학교 재학생이 269명(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 졸업생이 176명(31%)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 about Survey Participants (N=568)

Variable		n	%
Sex	Male	252	44.4
	Female	316	55.6
Age (years)	23 or Younger	187	32.9
	24-26	159	28.0
	27-29	112	19.7
	30-32	66	11.6
	33 or Older	44	7.7
Academic Achievement	High School Graduates or Below	70	12.3
	Students in College	269	47.4
	College Graduates	176	31.0
	Students in Graduate Schools or Above	53	9.3

##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측정을 위해 구글폼으로 작성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주요 문항은 참여자의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념적 성향 등), 이성교제와 성관계에 대한 태도(기독교적 입장에 대한 동의정도), 종교 활동과 신앙 성숙(교회 출석 기간, 예배 빈도, 이성교제 교육, 신앙 성숙 등)에 관한 것이었다.

### (1)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 (종속 변수)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은 혼전 이성간 동거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혼전 동거 동의 이유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질문하였다.

### (2) 종교 활동 (독립 변수)

종교 활동은 교회 출석 기간과 함께 현재 예배 참석 빈도, 그리고 신앙 활동(대학부·청년부 활동과 교회 봉사 활동 참여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교회에서 이성교제(데이팅) 관련 교육 참여 여부도 포함하였다.

### (3) 이성교제와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입장 (독립 변수)

이성교제와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 또는 입장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성교제에 관해서는 여섯 문항(상대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성, 하나님 우선순위, 3자의 조언, 기존의 동성 친구 관계 유지, 기존의 이성 친구 관계 유지)으로 구분하여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독교적 이성교제 입장에 대한 동의가 높다는 것이다. 성관계에 관해서는 세 문항(하나님의 선물, 부부만의 특권, 육체·감정·영적 결합)으로 구분하여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기독교적 성관계 입장에 대한 동의가 높다는 것이다.

### (4) 신앙의 성숙 (독립 변수)

신앙의 성숙 측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존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Francis와 Greer이 1992년에 개발한 크리스찬 도덕 가치 척도(Christian Moral Valu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개인의 태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개발자들의 논문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0.76으로 나타났고, 구성 개념 타당도가 확인되었다(Gorsuch, 1999). 크리스찬 도덕 가치 척도에서는 열 가지 도덕적 가치(도박, 음주, 술 취함, 절도, 마약, 결혼 전 성관계, 낙태, 피임, 자살, 이혼)를 “잘못”의 정도를 5점 척도(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 항상

잘 못 되었다)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 가지에 ‘결혼 후 혼외 성관계’를 추가하여 열한 가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 응답자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81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신앙 척도는 영적 성숙 척도(Spiritual Maturity Index)로 Ellison이 1983년에 개발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영적 성숙 척도는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를 둔 신앙의 성숙을 30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6점 척도로 평가하였다(Stevenson, 1999). Bassett과 동료들(1991)의 연구에 따르면 영적 성숙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0.92였고, 정숙희(2013)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0.90이었다. 본 연구 응답자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0.90으로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추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각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빈도, 평균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수와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의 일대일 관계를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종교 활동과 기독교적 인식 및 신앙 성숙)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중의 위계적 관계에서 혼전 동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주요 연구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Mean (Std. Deviation)
Perceptions of Social Issues <sup>1)</sup>	554	3.0 (1.08)
Family Satisfaction <sup>2)</sup>	568	5.4 (1.47)
Attitudes towards Marriage <sup>3)</sup>	560	4.0 (0.76)
Sense of Self & Overall Life Satisfaction <sup>4)</sup>	568	3.9 (0.81)

1) Perceptions of Social Issues: 1=Liberal - 5=Conservative

2) Family Satisfaction: 1=Very Unsatisfied - 7=Very Satisfied (Except 'Not applicable')

3) Attitudes towards Marriage: 1=Very Negative - 5=Very Positive (Except 'No idea')

4) Sense of Self & Overall Life Satisfaction: 1=Little or Not at All - 5= Almost or Always

이번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개인적 특성들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크리스천 청년들은 자신이 교육/입시, 기후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중도적 입장(35%)을 보고한 비율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중도 진보(25%)와 중도 보수(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가족생활만족도는 7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5.4점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입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이 4.0점으로 나타나 결혼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아감 및 일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9점으로 자기 자신과 전반적인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Table 3. Church Attendance and Religious Activities (N = 568)

Variable	Categories	n (%)	
Church Attendance Length	Christian but not attending church	3 (5)	
	30s or later	5 (9)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20s)	25 (4.4)	
	Since middle or high school	28 (4.9)	
	Since elementary school	35 (6.2)	
	Since before elementary school	44 (7.7)	
	Since birth	428 (75.4)	
Church Attendance Frequency	Not currently attending	10 (1.8)	
	Every two months or less	9 (1.6)	
	Once a month	8 (1.4)	
	Once in two weeks	24 (4.2)	
	At least once a week	517 (91.0)	
Religious Activities	Rarely or not at all.	71 (12.5)	
	Young Adult Group Activities	Occasionally	113 (19.9)
		Mostly	214 (37.7)
		All the times	170 (29.9)
	Voluntary Services at Church	Not currently serving	202 (35.6)
		On the request(not regularly), providing the services	94 (16.5)
Providing regular service in a position		150 (26.4)	
	Providing regular service in multiple positions	122 (21.5)	
Having Dating-Education in Church	Yes	279 (49.1)	
	No	289 (50.9)	

<Table 3>는 교회 예배 및 신앙 관련 활동 관련 변수들의 빈도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 출석 기간에 있어서 이번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428명, 75%)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모태 신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모태 신앙에서 초등학교부터 출석하였다는 응답까지의 누적 비율이 89%(507명)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91%(517명)가 주일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있었고, 열 명 중 일곱 명(68%)이 주일예배 참석뿐 아니라 대학부·청년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약 절반(48%, 272명)이 교회에서 정기적인 봉사 활동(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회에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49%로 절반 정도가 이성교제와 관련된 성경적 교육/토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도덕 가치와 영적 성숙도, 그리고 연애와 성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독교적 도덕 가치는 11가지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종합 평균이 4.0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독교적 도덕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적 성숙도는 6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이 4.3점으로 나타났다. 영적 성숙도의 중간 지점인 3.5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성교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4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이 각 3.3점과 3.5점으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Religious Piety

Variable	N	Number of Questions	Mean (Std. Deviation)
Christian Moral Values <sup>1)</sup>	554	11	4.0 (0.59)
Spiritual Maturity <sup>2)</sup>	567	30	4.3 (0.66)
Christian View on Dating <sup>3)</sup>	567	6	3.3 (0.43)
Christian View on Sex <sup>4)</sup>	568	3	3.5 (0.63)

1) Christian Moral Values: 1 = Not Wrong - 5 = Always Wrong (higher mean indicates higher receptivity to Christian moral values)

2) Spiritual Maturity: 1 = Strongly Disagree - 6 = Strongly Agree (higher mean indicates higher spiritually maturity)

3) Christian View on Dating: 1 = Disagree - 4 = Agree (higher mean indicates higher receptivity to Christian perspective)

4) Christian View on Sex: 1 = Disagree - 4 = Agree (higher mean indicates higher receptivity to Christian perspective)

## 2.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이유

Table 5. Attitudes towards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Categories	n (%)	Categories	n (%)
Strongly Disagree	233 (41.0)	Disagree	399 (70.2)
Disagree	166 (29.2)	Agree	142 (25.0)
Agree	127 (22.4)	No idea	27 (4.8)
Strongly agree	15 (2.6)	Total	568
No idea	27 (4.8)		
Total	568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혼전 동거를 찬성/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이번 연구 참여자들의 3%(15명)가 혼전 동거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22%(127명)가 ‘동의하는 편’으로 응답하여 총 25%(142명)가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혼전 동거에 동의하는 주된 이유로 ‘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66%(93명)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17%, 24명), ‘사랑한다면 결혼과 상관없이 같이 살 수 있어서’(11%, 15명) 순으로 많았다.

Table 6. The Reasons for those who agree/disagree with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For Cohabitation			Against Cohabitation		
Reason	n	%	Reason	n	%
I could understand my partner more.	93	65.5	It is not right by religious/faith standards.	189	47.8
I could experience marriage life in advance.	24	16.9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healthy family.	82	20.8
If I love my partner, I could live together regardless of marriage.	15	10.6	There is a risk of unwanted pregnancy and abortion.	58	14.7
I could relieve my loneliness and feel emotional stability.	6	4.2	It breaks down the existing social order for the marriage system.	31	7.8
I feel burdened about the cost of marriage.	1	.7	It is not right by social/ethical standards.	24	6.1
Others	3	2.1	Others	11	2.8
Total	142		Total	395	

반면, 이번 연구 참여자들의 41%(233명)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29%(166명)가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응답하여 총 70%(399명)가 혼전 동거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혼전 동거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종교/신앙적 기준에서 볼 때 옳지 않기 때문에’가 48%(189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가 21%(82명)로 나타났다. 혼전 동거에 반대하는 이유 중 기타 응답을 제외하면 ‘사회/윤리적 기준에서 볼 때 옳지 않기 때문에’가 6%(24명)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이것은 혼전 동거가 사회적으로(또는 젊은 층 사이에서는) 허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혼전 동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각 변인이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각각의 단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인구-사회-심리적 특성에서는 모든 변수가 혼전 동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참여자가(OR = 0.494), 나이가 많은 참여자가(OR = 0.825), 교육 수준이 높은 참여자가(OR = 0.638), 사회적 이슈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참여자가(OR = 0.689), 가족생활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가(OR = 0.864), 자아감 및 일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OR = 0.619)가 혼전 동거에 반대할 확률이 높았다.

종교 활동 관련 특성에서는 예배 외 종교 활동/봉사 참여를 제외한 교회 출석 기간, 예배 빈도, 교회에서 이성교제 교육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회 출석 기간이 긴(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참여자가(OR = 0.877), 예배를 정기적으로 자주 드리는 참여자가(OR = 0.502), 교회에서 이성교제 교육을 받은 참여자(OR = 0.368)가 혼전 동거에 반대할 확률이 높았다.

신앙 성숙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네 가지 변수 즉, 기독교적 도덕 가치(OR = 0.165), 영적 성숙도(OR = 0.241), 이성교제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OR = 0.185),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OR = 0.196),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기독교적 신앙의 성숙이 높을수록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위에서 단순 관계로 살펴본 변수들을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크리스천 청년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Table 8 참조). 먼저 모델 1에서는 참여자들의 인구-사회-심리적 요인들이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른 인구-사회-심리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성별, 교육 수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향, 결혼에 대한 태도, 자아감 및 일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혼전 동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이분형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혼전 동거에 동의할 확률이 낮았고(OR = 0.372,  $p < 0.001$ ), 교육 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혼전 동거

Table 7. Simpl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Variable	N	B	SE	p-value	OR
Sex (male → female)	541	-.706	.198	.000	.494
Age (young → old)	541	-.192	.076	.011	.825
Education (low → high)	541	-.449	.126	.000	.638
Perceptions of Social Issues (liberal → conservative)	527	-.372	.096	.000	.689
Family Satisfaction (low → high)	541	-.147	.065	.023	.864
Attitude towards Marriage (disagree → agree)	534	-.480	.131	.000	.619
Sense of Self & Overall Life Satisfaction (low → high)	541	-.365	.121	.003	.694
Church Attendance Length (short → long)	541	-.131	.060	.030	.877
Worship Service Attendance Frequency (rarely → often)	541	-.689	.146	.000	.502
Religious Activities (low → high)	541	.050	.205	.806	1.025
Having Dating Education in Church (no → yes)	541	-1.001	.204	.000	.368
Christian Moral Values (low → high)	527	-1.804	.216	.000	.165
Spiritual Maturity (low → high)	540	-1.421	.177	.000	.241
Christian View on Dating (low → high)	540	-1.689	.246	.000	.185
Christian View on Sex (low → high)	541	-1.630	.180	.000	.196

Dependent Variable: Attitudes toward Cohabitation 1 = Disagree - 2 = Agree



에 동의할 확률이 낮아졌다(OR = 0.860,  $p < 0.05$ ).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수적 성향도 혼전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OR = 0.711,  $p < 0.01$ ) 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일수록 동거에 동의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 = 0.622,  $p < 0.01$ ). 자아감 및 일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데(OR = .725,  $p < .05$ ), 이는 자아감 및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혼전 동거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27.5%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나이와 가족생활만족도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나이 OR = 0.895,  $p = 0.123$ ; 가족생활 만족도 OR = 0.893,  $p = 0.148$ ).

모델 2에서는 인구-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종교적인 활동과 관련된 변수들(교회 출석기간, 예배 빈도, 예배 외 활동, 교회에서 실시한 이성교제 교육 참여 여부)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예배 빈도가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OR = .578,  $p < 0.01$ ), 이는 예배에 참석하는 빈도가 정기적이고 많을수록 혼전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42.2%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한 이성교제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혼전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50.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 = .497,  $p < .01$ ). 통제 변인인 성별, 학력,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향, 결혼에 대한 입장이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여전히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자아감 및 일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모델 1과 달리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났다. 모델 2의 -2LL값은 496.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고( $\chi^2=100.179$ ,  $p < .001$ ), 모델 2의 설명력(Nagelkerke  $R^2=.257$ )은 모델 1에 비해 증가하였고, 예측률 또한 75.7%에서 78.2%로 증가하였다.

모델 3에서는 신앙적 성숙과 관련한 변수들(기독교적 도덕 가치, 영적 성숙도, 이성교제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을 모델 1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기독교적 도덕 가치, 영적 성숙도,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가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적 도덕 가치가 높을수록 혼전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63.4% 감소하였고(OR = 0.366,  $p < 0.001$ ), 영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혼전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6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 = 0.337,  $p < 0.001$ ). 또한 성관계에 대해 기독교적 입장을 가질수록 혼전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53.1% 감소하였다(OR = 0.469,  $p < 0.01$ ). 통제 변수들 중 결혼에 대한 입장은 모델 1, 2와 달리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교육 수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향은 여전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의 -2LL값은 411.6이고, Chi-square( $\chi^2$ )값은 185.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p < 0.001$ ). 모형의 설명력(Nagelkerke  $R^2=.440$ )은 모형 1과 모형 2보다 높았고, 모형의 예측률은 80.7%였다.

Table 8. Hierarchical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N=519)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OR	B	OR	B	OR	B	OR
Sex	-.990***	.372	-.828***	.437	-.659*	.517	-.564*	.569
Age	-.151	.860	-.143	.867	-.050	.951	-.050	.951
Education	-.349*	.705	-.392*	.676	-.466*	.627	-.482*	.618
Perceptions of Social Issues	-.341**	.711	-.309**	.734	-.372**	.689	-.343**	.709
Family Satisfaction	-.114	.893	-.111	.895	-.108	.897	-.106	.900
Attitudes towards Marriage	-.475**	.622	-.424**	.655	-.018	.982	-.035	.965
Sense of Self & Overall life satisfaction	-.322*	.725	-.243	.784	.181	1.199	.193	1.213
Church Attendance Length			-.077	.926			-.032	.968
Worship Service Attendance Frequency			-.549**	.578			-.197	.821
Religious Activities			.078	1.081			.177	1.194
Dating Education in Church			-.698**	.497			-.543*	.581
Christian Moral Values					-1.004***	.366	-.992***	.371
Spiritual Maturity					-1.088***	.337	-.996**	.369
Christian View on Dating					-.306	.736	-.307	.736
Christian View on Sex					-.757**	.469	-.686**	.504
-2 Log Likelihood	530.2		496.9		411.6		404.1	
Cox & Snell R <sup>2</sup>	.121		.176		.300		.310	
Nagelkerke R <sup>2</sup>	.177		.257		.440		.454	

\*  $p < .05$ ; \*\*  $p < .01$ ; \*\*\*  $p < .001$

모델 4에서는 모든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교회에서 실시한 이성교제 관련 교육 참여 여부, 기독교적 도덕 가치, 영적 성숙도,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가 혼

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회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혼전 동거에 대해 동의할 확률이 41.9% 감소하였으며(OR = 0.581,  $p < 0.05$ ), 기독교적 도덕 가치가 높을수록 혼전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6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 = 0.371,  $p < 0.001$ ). 또한 영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혼전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63.1% 낮았고(OR = 0.369,  $p < 0.01$ ), 성관계에 대해 기독교적 태도를 보일수록 혼전 동거에 동의할 확률이 49.6%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OR = 0.504,  $p < 0.01$ ). 통제 변인 중 성별, 교육 수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향이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의  $-2LL$ 값은 404.1, Chi-square( $\chi^2$ )값은 192.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p < 0.001$ ). 모형의 설명력(Nagelkerke  $R^2=.454$ )은 모형 1, 모형 2, 모형 3보다 높았으며, 예측률은 81.7%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으로 보았을 때, 모형 4는 모형 1과 모형 2와는 차이가 확실하였지만 모형 3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종교 활동 관련 변수보다는 신앙 성숙 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 V. 결론 및 논의

크리스천 청년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P 도시 소재 대학교 및 지역 내 여러 교회의 대학부/청년부 소속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회/신앙관련 활동 수준 및 경험, 개별적 영적/신앙적 상태에 대해 탐색하고, 그러한 요인들과 그들이 가진 동거에 대한 태도 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에 참가한 크리스천 청년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동거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과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와 74%로 나타나 동거에 반대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결과는 앞서 제시된 통계자료나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통계의 경우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거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통계청, 2020), 또 다른 한 연구에서 일반 대학생들의 67%가 동거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내용(학원복음화협의회, 2017)과 비교해 볼 때,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경우 4명 중 1명만이 동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해 이들 중 다수는 동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최근 수년간 진행된 대부분의 통계조사에서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입장이 절반 이상의 비율로 보고되어 왔고 더욱이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경우 혼전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이처럼 기존 통계에 비해 낮은 혼전동거 찬성 비율은 본 연구참여자들의 특성, 즉 참여자들 모두가 크리스천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일 예배 혹은 청년부 모임에 출석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다수가 자신이 매주 1회 이상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였고 3분의 2 가량이 대학청년부 활동에 열심히, 혹은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 참여자들 중 교회에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수치 또한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힌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상원 외(2014)의 연구에서 보고된 1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 실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연구의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와 같은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각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직까지는 본 연구의 주제인 혼전 동거와 관련하여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들은 앞으로 이어질 연구들을 위한 의미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인,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동거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위계적 회귀분석(Table 8, Model 1)에서는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 성별, 학력,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향, 결혼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자아감 및 일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리스천 청년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를 상당히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이와 가족생활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고 제시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크리스천 청년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교육수준과 나이의 경우, 교육수준과 나이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낮아짐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나이는 동거에 대한 태도를 더 이상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아 교육수준이 더 주요한 예측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즉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동거에 찬성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결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동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아감 및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동거에 찬성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느끼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수록 동거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는데,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혼전 동거에 대해 개방적임이, 특히 가족과의 정서적 단절 수준이 높을수록 더 개방적인 혼전 동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한곤·서정연, 2012; 박정윤 외, 2016).

두 번째로, 크리스천 청년들의 교회활동 및 신앙관련 활동 참여가 그들이 가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Table 8, Model 2), 청년들이 현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빈도는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예측하였지만 청년들의 신앙생활 기간과 예배 외 활동 및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는 그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그리고 예배 외 다른 활동(교회 봉사 등)에 열심히 참여하는 정도가 그들이 동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신앙활동 관련 변수인 교회에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동거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동거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회 내에서 적절한 이성교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교회나 사역자는 이같은 교육의 영향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앙활동 참여 정도나 신앙생활의 년수가 크리스천 청년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와는 상관이 없었던 반면 이성교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분명한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청년의 신앙활동 열심정도에 근거하여 동거를 포함한 성에 대한 태도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적절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분명한 효과가 기대되는 개입이라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Model 4)에서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개인 신앙적 요인들, 즉 그들의 신앙적/영적 수준, 그리고 연애/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그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존 요인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는 청년들의 기독교적 도덕 가치와 영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동거에 찬성할 확률은 낮아짐을 제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전 단계 분석에서 동거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혼에 대한 태도, 예배참석 빈도는 더 이상 동거 찬성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들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관점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요인들을 의미한다. 즉 주일예배 참석빈도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동거에 대한 입장과 관련이 있기는 하

지만, 개인의 신앙적/영적 성숙도, 기독교적 관점 등이 동거에 대한 입장과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먼저 기독교적 도덕 가치의 경우, 도덕 가치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 개인이 도박, 음주/술취함, 절도, 마약, 혼외 성관계 등의 도덕적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가 제시하는, 혹은 교회가 가르치는 도덕적 가치들을 내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혼전 동거를 반대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나아가 영적 성숙도의 경우,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예측 변인들 중 크리스천 청년들이 동거에 대한 갖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적 성숙도 척도는 도덕 가치 척도에 비해 보다 본질적인 개인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결국 개인의 신앙적, 영적 성숙함 정도가 그가 혼전 동거를 찬성할지 반대할 지에 대한 태도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회는 청년들을 양육함에 있어 이같은 결과, 즉 개인의 영적 성숙도가 앞서 제시된 교회출석 빈도는 물론 기독교적 도덕 가치 수준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동거에 대한 찬반 여부를 예측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교회가 청년들의 동거 문제나 성에 대해 성경적 입장을 갖도록 돕고자 할 때 결국 각 개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가 이처럼 민감한 이슈들에 있어 성경적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최종 분석 모형에 포함된, 크리스천 청년들이 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는 정도 또한 그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에 대해 더 명확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질수록, 즉 남녀 간의 성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부부에게만 한정된 특권이며, 정서적 영적 결합으로 바라볼수록 동거에 찬성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 또한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교회를 통해, 혹은 연애/성과 관련된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의 필요는 물론 그와 같은 교육을 통해 어떤 내용이 전달되어야 할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분석에 따른 결과를 살펴봄을 통해 각 주요한 요인들이 갖는 의미 및 상대적 유의미함과 관련된 여러 함의점들을 확인하였고, 주요한 논의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교회/예배 참석빈도가 동거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가질지 여부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즉 예배에 더 자주 참석하는 사람일수록 동거에 반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예배 참석 빈도 자체가 주요한 예측요인은 아님을 제시한다. 즉 청년들의 예배참석 자체보다 그들의 신앙적 성숙 정도가 동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질지 여부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주일 예배에 꾸준히 나오거나 혹은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는 드러나는 열심이나 행위가 아닌 각 개인의 신앙적 성숙 정도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교회가 크리스천 청년들을 양육할 때에, 개인의 신앙적 성숙 정도가 성(sex)과 관련된 민감하고, 모호하고, 미혹되기 쉬운 영역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행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독교적 도덕 가치와 관련된 기준들을 교육함과 함께 이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회 사역자들이 이같은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실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회복을 도우려 할 때에도 일단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이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적 도덕 가치를 받아들이고 영적 성숙의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제시할 방법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교회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적절한 연애와 성에 대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필요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교회에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모든 예측요인들을 포함한 마지막 분석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혼전 동거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면 교회출석빈도는 더 이상 유효하게 동거 태도를 예측하지 않았다),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성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만의 특권이자 영적, 정서적 결합)을 갖는 것이 동거에 대한 태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 또한 이같은 필요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신앙활동을 하는 것이 동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갖는 것과 연관은 있지만 주요한 예측요인은 아님을 확인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성이나 이성교제와 같은 주제에 대해 직접적인 배움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접근임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혼전 성관계나 동거의 문제의 경우 크리스천들 또한 사회 전반의 흐름과 분위기의 영향을 피할 수 없고, 해당 이슈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여지 또한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회 내에서 제공되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구 50만 정도의 중·소도시 소재 교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우리나라 전체 크리스천 청년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아직까지는 본 연구의 주제, 즉 동거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고 관련 통계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를 이해함에 있어 이 같은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존의 제한된 연구들과 비교할 때 각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 그리고 사용된 질문의 형식이 다르고 연구 간 시

간적 간격 또한 작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지만, 교회에서 이성교제 교육을 받은 것이 어떻게 동거에 대한 입장/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특히 이성교제 교육의 어떠한 부분이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이성교제 교육을 언제 받는 것이 보다 적절한지 등에 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의 유의미한 영향력 여부와 상대적 중요도를 함께 제시하였지만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비교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저자들은 기독교 대학의 교수이지만 신학적 전문성은 갖추지 못하여 주제와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신학적 고찰과 교회/목회 현장에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함의점들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바 없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성인식, 특히 동거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탐색함을 통해 각 요인들의 유의미한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실제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한국교회와 청년 사역자들이 참고할만한 고려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성 의식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기초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 (2008). 표준국어대사전. from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08).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from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권미경, 지영숙 (2005). 동거(同居)에 대한 고찰. *생활과학*, 8, 1-19.
- [Kwon, M. K. and Ji, Y. S. (2005). A study on Co-habitation. *Journal of human life sciences*, 8, 1-19.]
- 김미현 (2009).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Kim, M. H. (200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as attitude of cohabitation in college student*. Masters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김승권 (2014).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 24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m, S. K. (2014). *Korean family values and social policy directions*. Health·Social Welfare Issue & Focus 24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Kim, J. S. (2006).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1), 57-70.]
- 김지영 (2005). **동거를 통해 본 성별 관계의 지속과 변형: 20~30대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J. Y. (2005). *Study on maintenance and transformation of gender relationship through living together: based on women's cohabiting experience in their 20s and 30s*.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김한곤, 서정연 (2012).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의 인식과 태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2(1), 175-206.
- [Kim, H. G. and Seo, J. Y. (2002). Factors impacting on the marital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among college students. *National Cultural Debate*, 52(1), 175-206.]
- 김혜란, 김계하 (2010).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 경험과 외로움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2(5), 509-518.
- [Kim, H. R. and Kim, K. H. (2010). Cohabitation, loneliness, and family fun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2(5), 509-518.]
- 남정우 역 (2003). **성 윤리학**. Stanley J. Grenz. (1999).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서울:

살림.

- [Nam, J. W. (2003).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Trans. Stanley J. Grenz. (1999).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남주희 (2006).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 동거, 성역할, 자녀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Nam, J. H. (2006). *Factors affecting family values: marriage, cohabitation, gender roles, attitudes toward children*.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박정운, 장영은, 이희운 (2016). 20-30대 미혼남녀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4(2), 249-268.
- [Park, J. Y., Jang, Y. E., Lee, H. Y. (2016). Factors related to attitudes toward premarital cohabitation. *Family and Family Therapy*, 24(2), 249-269.]
- 변수정 (2017). **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 및 가치관**.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 332).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yun, S. J. (2017). *Experience and values of non-marriage cohabitation populations*. Health·Social Welfare Issue & Focus 33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yun, S. J., Kim, H. Y., Baek, S. H., Oh, J. A., Ki, J. R. (2016).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diverse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focus on nonmarital cohabit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손승희, 김민주, 이소림, 최지경, 하수정, 조명주 (2018). 남녀 대학생의 성별 간 혼전 성교 및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와 성적 자율성 정도 비교. **경북간호과학지**, 22(2), 1-10.
- [Son, S. H., Kim, M. J., Lee, S. R., Choi, J. K., Ha, S. J., Cho, M. J. (2018). A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premarital sex, cohabitation, and level of sexual autonomy. *Gyeongbuk Nursing Science Journal*, 22(2), 1-10.]
- 송정아 (2007). 혼전 동거와 기독교 상담적 태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4, 117-142.
- [Son, J. A. (2007). Pre-marital cohabitation and attitudes of Christian counseling.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14, 117-142.]
- 양수진, 임춘희 (2012). 성인초기 개인이 지각한 가족 기능과 자아 분화가 혼전 동거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73-198.
- [Yang, S. J., Lim, C. H. (2012). A study of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and the self-differentiation of individuals in early adulthood upon the consciousness of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4), 173-198.]

- 이경직 역. (2015).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John M. Frame. (2008).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서울: P&R Korea.
- [Lee, K. J. (2015).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Trans. John M. Frame. (2008).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New Jersey: P&R.]
- 이명조 (2003).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정도와 연애관, 결혼관, 결혼생활관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Lee, M. J.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liefs of young people in Christian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view on marriage and marital life value*.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이성규 (2010). **기독교 윤리로 보는 동거문화와 교회의 역할: 동거문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Lee, S. K. (2010). *The role of the church and cohabitation culture in Christian ethics: focused on the cohabitation culture*.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ee, S. Y., Kim, E. J., Park, J. S., Byun, S. J., Oh, M. A., Lee, S. L., Lee, J. H. (2018). *A survey on the national birth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in 201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상원, 정재영, 송인규 (2014). **교회의 성, 잠금 해제?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과 성 경험 보고서**. 서울: IVP
- [Lee, S. W., Jeong, J. Y., Song, I. K. (2014). *Sexuality in church, Unlock? Report on the sexual awareness and sexual experience of young people in Christianity*. Seoul: IVP.]
- 이연주 (2008). 동거와 한국가족: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동거자의 특성, **한국인구학**, 31(4), 77-100.
- [Lee, Y. J. (2009). Implications of cohabitation for the Korean family: cohabiter characteristics based on national survey dat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4), 77-100.]
- 임종원 역 (2003).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Fred Lowery. (2002). *Covenant marriage: staying together*.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 [Lim, J. W. (2003). *Covenant marriage: staying together*. Trans. Fred Lowery. (2002). *Covenant marriage: staying together*. Louisiana: Howard publishing.]
- 장미 (2005). 한국 청소년의 혼전 동거에 대한 고찰. 백석기독교학회 제8회 학술세미나, 45-55.
- [Jang, M. (2005). *A study on the premarital cohabitation of Korean teens*. Baekseok Christian Society 8<sup>th</sup> academic seminar, 45-55.]

- 정숙희 (2013).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의 조절 효과. *신앙과 학문*, 18(2), 107-133.
- [Jung, S. H. (2013).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Faith & Scholarship*, 18(2), 107-133.]
- 정희정 (2001). **미혼남녀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Jung, H. J. (2001). *Research on the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urs of single males and females*.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통계청 (2010). 사회조사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198972&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198972&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Statistics Korea. (2010). Social survey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198972&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198972&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 통계.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495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4954)
-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2017 adolescent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495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4954)]
- 통계청 (2020). 사회조사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86249\\_3&rs=/assist/synap/preview#](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86249_3&rs=/assist/synap/preview#)
- [Statistics Korea. (2020). Social survey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86249\\_3&rs=/assist/synap/preview#](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86249_3&rs=/assist/synap/preview#)]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청년 트렌드 리포트\_우리 시대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서울: IVP
-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2017). *Youth Trend report\_what do young people of our time live for*. Seoul: IVP.]
- Bassett, R., Camplin, W., Humphrey, D., Dorr, M., Hunsberger, P., Poage, R., & Thompson, H. (1991). Measuring Christian maturity: A comparison of several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1), 84-93.
- Brown, S. L. (2004). Moving from cohabitation to marriage: Effects on relationship quality. *Social Science Research*, 33, 1-19.
- Brown, S. L., & Booth, A. (1996). Cohabitation versus marriage: a comparison of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668-678.
- Bumpass, L. L., & Sweet, J. A. (1989). National estimates of cohabitation. *Demography*, 26, 615-25.

- Bumpass, L. L., Sweet, J. A., & Cherlin, A. J. (1991). The role of cohabitation in declining rate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9), 13-27.
- Casper LM & Bianchi SM. (2002).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American family*. Sage; Thousand Oaks, CA.
- Francis, L. J., & Greer, J. E. (1992). Measuring Christian moral values among Catholic and Protestant adolescents in Northrn Ireland. *Journal of Moral Education*, 21(1), 59-65.
- Gorsuch, R. L. (1999). Christian Moral Values Scale. In Hill, P. C. & Wood, R. W. Jr. (Eds.). *Measures of Religiosity* (pp. 242-244).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 Heuveline, P., & Timberlake, J. M. (2004). The Role of Cohabitation in Family Form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14-1230.
- Mynarska, M., & Matysiak, A. (2010). Diffusion of cohabitation in Poland. *Studia Demograficzne*, 157(12), 11-25.
- Ridley, C., Peterman, D., & Avery, A. (1978). Cohabitation: Does It Make for a Better Marriage? *The Family Coordinator*, 27(2), 129-136.
- Rindfuss RR, & VandenHeuvel A. (1990). Cohabitation: A precursor to marriage or an alternative to being singl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6, 703-726.
- Stanley, S. M. (2005). *The power of commit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tanton, G. T. (2011). *The ring makes all the difference*. Chicago, IL: Moody Publishers.
- Stevenson, D. H. (1999). Spiritual Maturity Index. In Hill, P. C. & Wood, R. W. Jr. (Eds.). *Measures of Religiosity* (pp. 201-204).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 국내 크리스천 청년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종교활동 참여와 기독교 신앙심의 영향을 중심으로\*

## Christian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s Cohabitation: Focusing on Church Activity Participation and Christian Religiosity in South Korea

조성봉 (한동대학교)  
이수민 (한동대학교)  
장선아 (한동대학교)  
강병덕 (한동대학교/교신저자)

### 논문초록

최근 들어 국내 사회 전반에서 혼전 동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크리스천 청년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및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568명의 크리스천 청년들의 교회/종교활동 참여 정도와 기독교 신앙/영성의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 청년 4명 중 3명은 혼전 동거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예배 빈도, 교회에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신앙의 성숙도, 성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 기독교적 도덕 가치의 수준이 혼전 동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제시하였다. 결과와 관련된 의의 및 교회와 사역자들이 고려할 사항들은 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동거태도, 크리스천 청년들, 종교활동 참여, 기독교 신앙심